

맥추절

박 남 규(목사, 강원 화천 계성교회)

본문 : 신16:9-12

제목 : 2001 맥추절을 지키라!

“칠 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신16:9-12)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출 23:16)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출 34:22)

맥추절은 밀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 작물 추수감사제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두 번째 절기로(출 34:22; 신 16:10). 맥추절(출 23:16),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민 28:26) 등으로도 불립니다. 칠칠절은 본래 수확제였습니다.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특별한 축제일을 지칭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처음 보리를 벨 때부터 시작해서 밀 수확을 끝마치는

7주 가량의 전체 곡물 수확기간을 말합니다.

칠칠절이란 이름이 생기게 된 데는 이 칠칠절이 유월절이란 최대의 명절을 지난 후 칠 주가 지난 다음날에 지키는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난 후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명절인 것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생겨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그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수확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도 맏아들은 의례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3:9-10)

“칠칠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출34: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레23:9-10)

맥추절은 밭에다 뿌린 밀과 보리의 수확을 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명령이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둬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출23:16)

오순절이란 명칭이 생긴 것은 유월절의 제2일에서 계산해서 7주 후 즉 50일째에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두 천사를 땅으로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바구니에 소원을 담아 오도록 하였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한 천사의 바구니는 무수히 많은 소원으로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는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의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녔어도 지구상에서 감사 찬송의 기도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만 미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에게 그 어떤 것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값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극심한 가뭄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메마름을 보는 듯합니다. 가뭄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늘이 허락치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깊은 한숨을 짓습니다. 비 오기를 고대하며 가뭄을 한탄하며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감사의 회복이 오늘 극심한 가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까도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도 감사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 천사는 슬픔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127: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의 말과 같이 인간들의 모든 수고 위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 수고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이 맥추절

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맥추절을 지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밀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밀이요 보리요, 여러 수확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밀, 보리와 함께 연중 수확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는 보리의 첫 수확이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재배방법의 다양화와 발전에 따라서 연중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의 수확 때마다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사는 삶과 그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꺼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첫째로, 분복대로 예물을 드리며 지켜야 합니다(10절). 여기 분복이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정도를 따라 받은 복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좀 적은 듯 하지만, 어떤 이는 아주 많은 듯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재능, 가족, 성품 등도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 주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똑 같이가 아니라 복을 받은 정도대로 힘에 겹치지 않게 스스로 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결코 억지나 아까와 함으로 드려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분업화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농사짓는 것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인 것을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나서 돈벌어 시장에 가서 과일도 사고 채소

도 사서 먹는 줄 알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과일과 채소 값은 농부들의 수고의 댓가와 교통비와 상인들의 이윤이 더해진 것입니다. 가끔은 농부의 수고비도, 원자재비용도 계산되지 않은 채 유통 이윤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과일과 채소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생선 값은 사실은 생선 값이 아니요. 목숨을 걸고 잡아온 고기를 어부들의 수고비와 교통비와 상인들의 이윤이 더해진 것입니다. 생선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사 할 때 꼭 감사기도를 드리고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 못하는 우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복주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불꽃같은 눈으로 심령골수를 쪼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둘째로, 자원하여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총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히 여김으로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확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모두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고백에서 구별되어진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이 풍성하게 드러지고 다음에는 즐거운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 식구와 함께 일한 모든 이들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즉 나그네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즉 온 백성이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수확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드리는 것이 감사요,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주의 종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그 드러진 수확물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즐거움이 바로 이 감사절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확의 복을 받은 성도들의 풍성하게 드림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 모든 예물을 성전 뜰로 가지고 옵니다. 고기, 양고기 등을 많이 가져와서 지글 지글 볶기도 하고 먹으면서 박수치며 춤도 추고 소고를 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제일이므로 신나게 뛰며 찬송하고 춤을 추는 것이 성경의 원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웃으며 감사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 율창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었던 과거보다 자유함을 받은 지금이 얼마나 더 좋은가! 우리 조상들도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공출로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지하 굴을 파고 숨기도 했습니다. 모두 빼앗기고 일본 사람에게 배급을 받았습다. 또, 해방 후 6.25, 그리고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려면 과거에 종 되었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편없이 가난했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과 고난과 멸망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더욱 축복의 손길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